

남원시, 국가예산 2676억원 확보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호응'

올해 대비 773억원 증액 역대 최대... 시민 안전·삶의 질 향상 위한 사업 주력

남원시가 2021년도 국가예산 2,676억원을 확보했으며, 이는 2020년 1,903억원에 비해 773억원이 증액된 규모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이환주 남원시장

이환주 시장을 비롯해 관계자들이 2021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중앙부처 및 국회단체에서 반영하기 위해 활동한 결과로 확보한 국가예산은 1,217억원이며, 이는 지난 8월 지중호우 피해 복구에 따른 국비 확보액 513억(농업기반시설 복구비 54억, 산림피해 복구비 109억, 지방하천 224억, 소하천 113억, 도로 11억 등)을 제외한

규모이다.

남원시가 신규로 발굴 확보한 사업은 54건, 총사업비 1,932억(국비 총액 1,342억)이며, 그 중 대표할 만한 사업으로 ▲관광단지 리플러스 공모사업(230억) ▲LX드론 활용센터(60억) ▲세대어울림 복합형 도서관 건립(118억) ▲스마트 상수도 보급 지원사업(47억) ▲산내, 아영, 주생, 사매 4개 지구 하수관로 개선사업(456억) 등과 ▲전문대 전시기개선 사업(10억)을 비롯하여 ▲가족센터(39억) ▲왕정공원 숲속 아영장 조성사업(24억) 등 다양한 공모사업을 통해서도 예산을 확보했다.

특히, 국회단체에서도 10개 사업, 국비 46억을 추가 확보한 바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예산(국비 11.85억 반영) ▲광한루원 동문 확장사업(국비

3.5억 반영) ▲남원읍성 종합정비사업(4.9억 증액) ▲남원 유곡리와 두라리 고분군 경관정비(4.13억 증액) 등이다. 이밖에도 현안사업인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국비 40억) ▲남원화장품 기업 지식산업센터 건립(국비 54억) ▲윌라점수장 개량사업(국비 53억), 유관기관 사업인 ▲만인의총 유적정비(국비 56억) 등 사업예산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 확보에 노력했다"며, 2021년 시 예산 확보에 기여해 주신 정치권을 비롯해 남원출신의 공무원 선추배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대면·원격수업 등 추진

순창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촉발된 비대면 문화에 빠르게 대응해 관내 다문화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호응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임시휴관에 들어가자 군은 기존 집합 프로그램 틀에서 벗어나 비대면 서비스, 원격교육 등 다문화가정을 위한 촘촘한 서비스를 제공한 것.

군과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다문화 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소규모 마을학당 25개반 888회 ▲소규모 자조모임 등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공간 운영 4개반 70회 등을 운영했다. 또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된 한국어교육 5개반 109회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8개반 66회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47명 지원 등도 이뤄졌다.

특히 글로벌 마을학당은 지난 6월 한국CXT(주) 순창공장과 업무협약을 통해 이주노동자반을 추가 개설해 소규모로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방역수칙 등을 안내했다.

뿐만 아니라 교육을 원하는 가정이라면 지역과 인원수에 상관없이 찾아

가는 마을학당 사업을 추진, 지난해 2,052명 대비 50% 증가한 3,09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의 경우 원격수업을 활용해 집에서 자녀와 함께 프로그램을 제공받고 외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 호응도가 매우 높았다.

온라인개학으로 초·중·고등학교 원격수업이 진행될 당시에도 방문지 도사와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직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 가정을 방문해 자녀양육과 학교 원격수업에 대한 학습지도도 도왔다.

또 센터 임시휴관 중에도 센터종사자는 사무실에서 정상 근무를 하면서, 전화상담 및 홈페이지를 활용한 비대면 업무를 상시 수행했으며, 통번역서비스도 2,541건 진행했다.

황승주 군수는 "중장기적으로 가족형태가 다양해지는 환경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에 대한 세심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때"라며 "모든 다양한 가족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시장,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시장' 선정

도내 유일 선정 국무총리 표창

임실전통시장이 도내 유일 우수시장으로 선정되면서 국무총리 표창의 영예를 안았다.

임실군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0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우수시장' 선정에서 임실시장이 선정,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8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매년 전통시장·상점가 상인 및 우수기관, 시장을 대상으로 사기진작과 자금심 고취를 위해 유공자 포상을 수여해 왔다.

올해는 전국 단위 1,500여개 시장 중 임실시장을 포함한 3개소를 우수시장으로 선정했다.

임실시장은 1977년에 개설된 43년의 오랜 전통을 가진 임실군민들의 삶의 위안이 되는 곳이자, 지역민간 정을 나누는 전통시장으로서 명맥을 이어왔다. 지난 2004년부터 골목형 점포 신축과

비가림 시설, 주차장, 워터 조성을 통해 현대화를 추진하며, 지역 중심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임실치즈테마파크 등 지역 내 대표관광지와 35사단 군부대 등과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임실시장만의 차별화된 문화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용객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공연장과 판매장이 공존하는 새로운 관광명소로서 위상을 다졌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 및 차단을 위해 임실전통시장과 터미널 이용객을 위해 매일 2회씩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소독·마스크 배부, 발열체크 등 안전한 시장 만들기에 주력했다.

전통시장 화제에 대비하기 위해 화재감지 시설을 설치, 더욱 안전한 전통시장으로 주민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시장에 있는 점포 67개 모두가 시장

상인회에 가입뿐만 아니라 노점 상인들까지도 상인회에 가입해 상생모델로서 타시장의 모범이 되고 있다.

임실시장 상인회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앞으로도 국내 최고의 브랜드인 임실치즈의 명성으로 시장방문객에게 불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이 꾸준히 늘어나는 흥겹고 다시 찾고 싶은 시장을 만들어 갈 각오다.

김영수 임실시장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수상은 시장 발전을 위해 상인 모두가 하나되어 노력한 결과"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이 크지만, 빈틈없는 방역과 거리 두기 실천으로 안심하고 올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민 군수는 "임실시장 상인 여러분의 부단한 노력으로 얻은 소중한 결실"이라며 "임실시장이 더욱 발전하여 국내 최고의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행정적 관심과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심민 임실군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과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긴급대책회의'를 가졌다.

임실군,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시행

임실군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을 강도높게 시행한다.

심민 임실군수는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방침과 관련 '코로나19 방역수칙 강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코로나19가 다양한 경로로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매우 엄중한 상황인 만큼 전 부서는 긴장감을 갖고 임해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회의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행정명령'을 시행하고 방역수칙 준수 철저와 불필요한 대면

활동 자제를 당부했다.

2단계 격상 시 변동되는 주요내용으로는 10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이 금지된다.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정구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의 20%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기타 종교활동 주관의 모든 모임과 식사, 숙박행사는 금지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시, 코로나19 확진자 추가 1명 발생

남원지역에서는 지난 5일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8명 발생했으나 6일과 7일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8일 추가 1명이 확진돼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는 전북#393(남원#2)번 확진자의 친구로 지난 2일 밀접 접촉,

12월 4일 오후 1시부터 자택에서 자가 격리 중 6일부터 인후통이 있어 7일 검체 후 8일 오전 7시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확진자 자택 방역 소독을 완료하고 동거 가족인 부모에 대해서는 8

일 오전 9시 검체를 채취, 전라북도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아 남원 관내 이동 동선이 없으나 격리전 관외 이동 동선이 있어 해당 시군구에 밀접 접촉자와 방문시설을 통보하였으며, 확진자(남원#9)는 8일 오후에 남원의료원에 입원 격리치료를 들어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통

남원시, 광한루원·관광지 야간경관 구축사업 추진

남원시는 관광도시로서의 품격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광한루원과 요천 등의 관광지 일원에 야간경관을 조성해 새롭게 탈바꿈 시키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광한루원 담장 외벽 630m 구간에 라인조명을 설치하고, 승월교 전체 구간에 라인조명과 투광 등을 설치해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으며, 요천 제방길에는 수목 투사 등을 설치해 빛나루와 어울린 아름다움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승월폭포의 미디어 파사드와 춘향문화예술회관의 LED전광판이 내년 4월경에 마무리되면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현재 관광과장은 "야간경관 구축사업으로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멋진 야경을 제공, 코로나19로 지친 마음은 달래주고 남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관광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2기 신입생 31일까지 모집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나상우)에서는 지역농업을 선도할 전문농업경영인육성을 목표로 운영하는 남원명품농업대학 제12기 신입생을 오는 31일까지 모집한다.

제12기 명품농업대학은 4개반(포도반 25, 농산가공반 25, 스마트팜반 25, 농업기계반 25) 100명으로, 각 과정마다 공통과목, 이론, 현장·실습교육 등 다양하게 구성하여 집합식 이론교육의 한계를 벗어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실습하고 시연해보는 오감형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편성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남원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형을 거쳐 입학자격을 갖게 되지만 청년농업인과 귀농귀촌인, 명품농업대학 초·최초신청자는 가산점을 주어 입학의 문을 넓혔다.

원서교부 및 접수처는 각 읍·면·직할 농민상담소와 농업기술센터로 주민등록등본 및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의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